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Equity Research
2026.11.12

Not Rated

목표주가	-
현재주가(26/11/11)	19,760원
상승여력	-

영업이익(26F,십억원)	-
Consensus 영업이익(26F,십억원)	-
EPS 성장률(26F,%)	-
MKT EPS 성장률(26F,%)	-
P/E(26F,x)	-
MKT P/E(26F,x)	-
KOSDAQ	705.10
시가총액(십억원)	1,287
발행주식수(백만주)	65
유동주식비율(%)	42.1
외국인 보유비중(%)	2.8
베타(12M) 일간수익률	0.94
52주 최저가(원)	17,900
52주 최고가(원)	72,500

(%)	1M	6M	12M
절대주가	-18.5	-52.7	N/A
상대주가	3.1	-19.1	N/A



[글로벌 바이오텍]

서미화
mihwa.seo@miraeasset.com

0009K0 · 제약/바이오

에임드바이오

기술이전 성과의 수익화

AMB302: ESMO 2026에서 FGFR3 ADC의 임상 PoC 확보

에임드바이오는 글로벌 제약사 대상 기술이전 실적 2건(바이오헤이븐, 베링거인겔하임)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이전 계약의 수와 규모보다는 이미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에서 후속 개발 성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상 경제적 가치가 단계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AMB302는 바이오헤이븐(Biohaven)에 기술이전된 FGFR3 타깃 ADC로, 방광암·두경부암 환자에서 과발현되는 타깃을 표적하는 'First-in-class' 자산이다. 임상 1상 유효성 평가 환자 17명 중 3명에서 확정 부분반응(cPR), FGFR3 활성화 유전자 이상 환자 6명 중 3명(50%)에서 cPR을 확보했다. 최대 7mg/kg까지 용량을 증량하는 과정에서 용량제한독성(DLT)은 관찰되지 않았다. 11월 19일 ENA에서 임상 1상 추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ODS025: 베링거인겔하임 기술이전 후속 마일스톤 달성

에임드바이오는 2025년 매출액 473억원, 2026년 상반기 287억원을 기록했다. 현금 및 금융자산 약 1,700억원을 기반으로 자체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을 보유했다. 다만 기술이전 수익은 단계별로 인식되므로 분기별 실적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2026년 10월,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ODS025에 대한 마일스톤 수령이 확정되면서, 2년 연속 흑자 달성도 가능한 상황이다. ODS025는 베링거인겔하임에 약 1.4조원 규모로 기술이전된 파이프라인으로, 2026년 5월 말 임상시험계획(IND) 제출을 완료했으며 최근 첫 환자 투약이 시작되었다.

듀얼 페이로드 및 이중항체 ADC로 포트폴리오 확장

SK플라즈마와 공동개발 중인 AMB303(ROR1 ADC)은 2026년 하반기 IND 제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임상 1상에 진입할 계획이다. 초기 임상에서 안전성과 항종양 활성을 검증한 뒤 글로벌 기술이전을 추진할 전망이다. 동시에, AMB306~308에서 이중항체·듀얼 페이로드 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Topo 1 억제제 내성 및 종양 이질성 극복을 목표로 차세대 ADC 기술이전 기회를 확대하는 전략이다. 에이비스, 갤럭스, 소바젠 등과의 전략적 투자 및 공동 연구를 통해 차세대 모달리티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

결산기 (12월)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십억원)	0	0	12	47
영업이익 (십억원)	-6	-6	0	21
영업이익률 (%)	-	-	0.0	44.7
순이익 (십억원)	-6	-9	-3	5
EPS (원)	-185	-257	-73	92
ROE (%)	-130.6	-111.8	-65.7	5.1
P/E (배)	0.0	0.0	0.0	626.6
P/B (배)	0.0	0.0	0.0	19.2
배당수익률 (%)	-	-	-	0.0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에임드바이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 기업 개요 및 차별화 경쟁력

1. 삼성서울병원 스핀오프 기반의 환자 중심 신약개발

에임드바이오는 2018년 삼성서울병원 연구진을 중심으로 설립된 ADC 전문 바이오텍이다. 창업자이자 CTO 및 이사회 의장인 남도현 교수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난치암 연구를 주도하며 축적한 연구 경험과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실제 환자 유래 종양 샘플과 분자생물학적 데이터를 활용해 신약 표적을 발굴하고, 이를 항체 설계 및 전임상 검증으로 연결하는 개발 체계에 있다. 특히 정상 조직 대비 암 조직의 표적 발현 특성을 분석해 치료역이 넓은 ADC 후보물질을 도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2. 플랫폼 기술보다 완성형 신약 에셋에 집중

에임드바이오는 항체, 링커, 페이로드 등 ADC 구성 요소의 자체 개발 역량을 확보하면서도 요소 기술의 단순 라이선싱보다는 완성형 신약 후보물질의 기술이전을 우선하는 사업 모델을 택했다.

이러한 전략은 플랫폼 기술료에 국한되지 않고 개별 파이프라인의 임상 개발, 허가 및 상업화 단계에 따른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임상 개발 성과와 파트너사의 개발 우선순위에 따라 미래 수익이 변동할 수 있다.

3. 글로벌 기술이전으로 검증한 사업개발 역량

에임드바이오는 2024년 바이오헤이븐과 AMB302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5년 베링거인겔하임과 ODS025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두 계약을 통해 글로벌 제약사의 후보물질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ADC 에셋을 연속적으로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5년 12월 코스닥 상장 이후 코스닥150 특례 편입에 성공했다. 다만 기술이전 계약의 총액은 미래 개발 및 상업화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므로 확정 매출이나 현금 유입과는 구분해야 한다.

II. 주요 파이프라인

1. AMB302: ESMO 2026에서 FGFR3 ADC의 임상적 가능성 확인

AMB302는 에임드바이오가 중국 ADC 전문기업인 진퀀텀(GeneQuantum)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미국 상장사인 바이오헤이븐(Biohaven)에 기술이전한 FGFR3 ADC(토포이소머라아제 1 계열의 페이로드 탑재)다. 에임드바이오가 개발한 FGFR3 표적 항체에 진퀀텀의 링커·페이로드 기술이 접목되었다. AMB302가 표적하는 FGFR3는 비근침윤성 방광암(약 70~80% 발현)을 포함하여 다양한 고형암에서 높게 발현된다.

기존 FGFR3 저해제(발베사)가 특정 FGFR3 유전자 변이 환자에게만 국한되는 것과 달리, AMB302는 FGFR3 변이뿐 아니라 야생형 FGFR3 과발현 종양에서도 활성을 확인하면서 유전자 변이 기반 치료제보다 넓은 환자군에 적용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발베사는 고인산혈증과 안구·피부 관련 독성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과거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FGFR3 타깃 ADC는 임상 1상 환자 25명에서 객관적 반응을 확보하지 못했다. AMB302는 확정 부분반응을 확인함으로써 FGFR3 ADC의 임상적 개발 가능성을 제시한 후보물질로 평가된다. 다만 FGFR3 과발현 환자 전체를 실제 치료 대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는 향후 바이오마커 기준, 반응률 및 안전성 검증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10월 ESMO에서 공개된 AMB302 임상 1상 용량증량시험 중간 결과는 FGFR3 ADC의 항종양 활성을 실제 환자에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체 환자 17명을 기준으로 3명(17.6%)에서 cPR이 확인되었다. FGFR3 활성화 유전자 이상 환자 6명 중 5명에서 종양 크기 감소가 관찰됐으며, 이 중 3명은 확정 부분반응을 기록했다. 특히 파드셉 및 FGFR 저해제 등 기존 치료를 받은 요로상피암 환자에서 6개월 이상 반응이 유지된 사례가 보고됐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최대 7mg/kg까지 용량을 증량하는 과정에서 DLT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최대내약용량(MTD)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는 추가 용량 탐색 가능성을 뒷받침하나, 장기 안전성은 입증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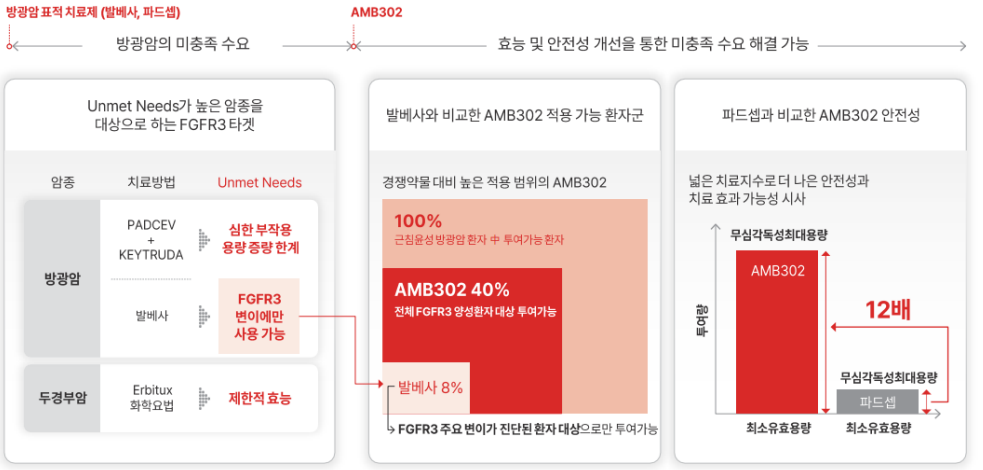
이번 ESMO 발표의 핵심은 FGFR3가 ADC의 유효한 항암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초기 임상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과거 동일 표적 ADC의 개발 실패 이력을 고려하면, 복수의 확정 부분반응은 후속 임상 개발의 근거가 된다.

다만 전체 17명 기준 확정 PR 비율 17.6%는 아직 가속승인 가능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임상 1상은 용량별 환자 수가 제한적이고 여러 암종이 포함돼 있어, 향후 권장 2상 용량(RP2D)에서의 반응률과 반응 지속기간(DOR)을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바이오헤이븐은 리제네론과 임상용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3Q26부터 AMB302와 PD-1 면역항암제 리브타요의 병용 코호트 환자 등록을 개시했다. 향후 단독요법에서 확인한 항종양 활성이 병용요법에서도 재현되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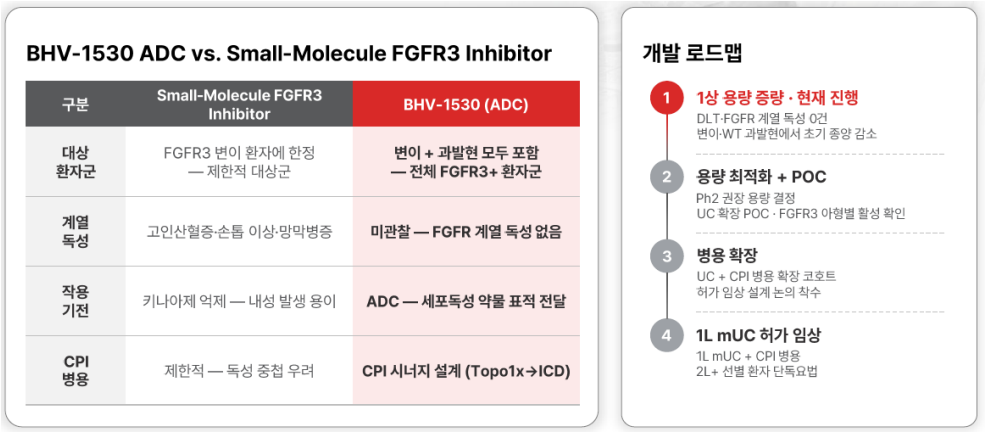
2026년 11월 19일 예정된 ENA 심포지엄 발표에서는 ESMO 이후 추가된 환자와 고용량 코호트의 반응, 확정 PR의 증가 여부, 안전성 및 반응 지속기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AMB302: 방광암의 미충족 의료수요 해결 기대



자료: 에임드바이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AMB302: 차별화 포인트 및 개발 로드맵



자료: 에임드바이오, 바이오헤이븐,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 ODS025: 베링거인겔하임 기술이전 후속 마일스톤 달성

ODS025는 에임드바이오가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이전한 ADC 후보물질로, 베링거인겔하임의 개발코드명은 B I4060107이다. 양사는 2025년 10월 15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며, 회사가 제시한 총 계약 규모는 약 1.4조원이다.

ODS025의 표적은 비공개다. 회사가 제시한 개발 방향은 기존 ADC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표적의 치료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폐암과 대장암 등 KRAS 변이 고형암에서의 개발 가능성이 언급됐으나, KRAS 변이 자체가 직접 표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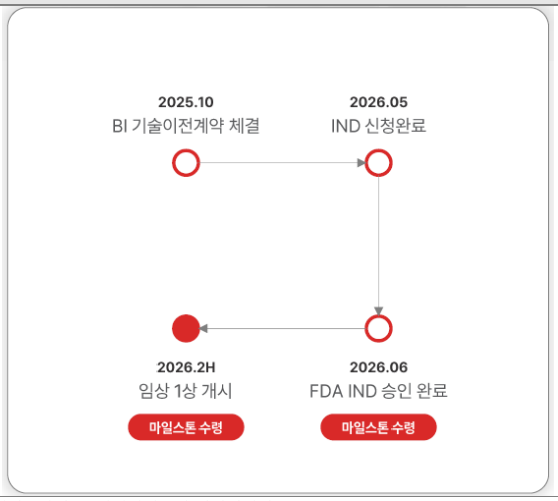
베링거인겔하임의 ADC 포트폴리오에서 ODS025가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에임드바이오는 2026년 10월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이전한 ODS025(BI 4060107)의 글로벌 임상 1상 첫 환자 투약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개발 마일스톤 지급 조건을 충족했으며, 10월 27일 이를 공시했다. 계약 규모는 최대 9억 9,100만 달러로, 이번 마일스톤의 정확한 지급액은 비공개다.

그림 3. ODS025 임상시험 개요

파이프라인	ODS025 (BI 4060107)
임상 단계	Phase 1
승인기관	미국 FDA, 한국 MFDS, 일본 PMDA, 프랑스 ANSM, 호주 HREC
승인일	2026년 6월 26일
대상 질환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고형암
실시 국가 / 기관	5개국(미국, 한국, 일본, 프랑스, 호주) / 13개 기관
목표 피험자	약 90명
임상 기간	IND 승인일부터 약 36개월
1차 목표	최대내약용량(MTD) 및/또는 권장확장용량(RDE) 결정

자료: 에임드바이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ODS025 개발 타임라인



자료: 에임드바이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3. AMB303: ROR1 ADC의 차별화된 페이로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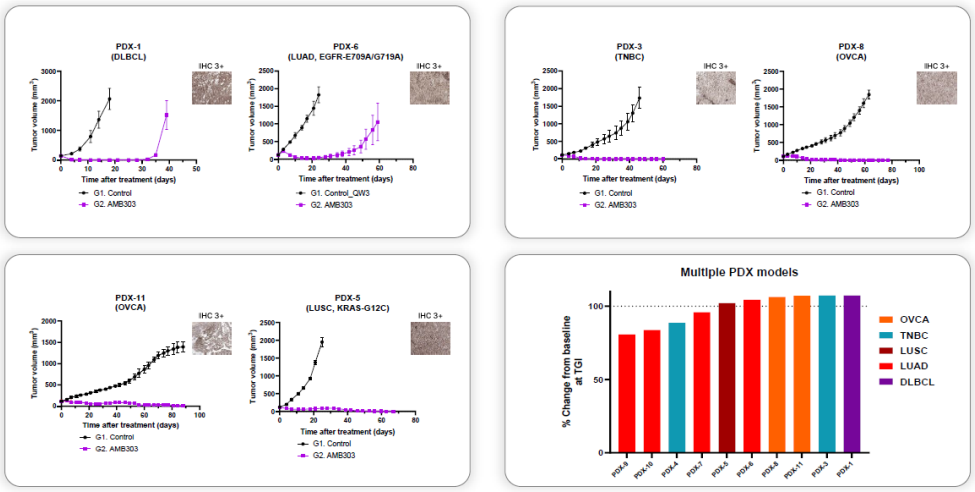
AMB303은 ROR1을 표적하는 ADC 후보물질로, 에임드바이오가 SK플라즈마와 공동개발하고 있다. 2025년 5월 체결된 계약을 기반으로 에임드바이오가 연구개발을 주도하며, 향후 글로벌 제약사 대상 추가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구조다. 에임드바이오는 개발 단계에서 후보물질의 가치를 높인 뒤 글로벌 파트너에게 이전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후속 수익을 배분받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ROR1은 일부 혈액암 및 고형암에서 발현되는 표적으로, 정상 성인 조직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발현 특성을 보인다. 다만 ROR1 ADC는 이미 여러 글로벌 제약사가 개발을 진행해온 경쟁 분야다. 기존 ROR1 ADC 중 일부는 MMAE 또는 PBD 계열 페이로드를 적용했다. AMB303은 Topo 1 억제제 기반 페이로드를 채택해 치료역 확대와 안전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다만 페이로드 차이가 임상적 우월성으로 연결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기존 ROR1 ADC의 임상 실패 원인도 페이로드 독성뿐 아니라 표적 발현, 약물 전달 효율, 환자군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AMB303은 ROR1 과발현 고형암과 혈액암을 대상으로 개발 중이며, 폐암·유방암·난소암 및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등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T세포 관여항체 및 면역항암제와의 병용은 향후 개발 방향 중 하나다. 다만 병용요법의 실제 임상 적용은 초기 단독요법의 안전성 및 약동학 데이터 확보 이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2026년 미국 FDA와 한국 식약처에 임상시험계획을 제출하고, 2027년 글로벌 임상 1상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5. AMB303: 다양한 PDX 모델에서의 우수한 항암 효과 검증



자료: 에임드바이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4. 후속 파이프라인: 듀얼 페이로드 및 이중항체 ADC 확장

AMB305는 폐암, 방광암, 두경부암 등에서 발현되는 신규 표적을 대상으로 개발 중인 ADC다. 회사는 정상 조직과 종양의 발현 특성 차이를 활용해 종양 선택성을 높이는 항체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초기 단일 페이로드 ADC 설계에서 듀얼 페이로드 ADC로 개발 방향을 확장했다. 서로 다른 작용기전의 세포독성 약물을 하나의 ADC에 탑재해 종양 내 이질성과 단일 약물에 대한 내성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글로벌 ADC 산업에서 중요성이 높아지는 기술적 방향과 부합한다. 다만 듀얼 페이로드 ADC는 약물 비율, 링커 안정성, 제조 균일성 및 독성 관리 측면에서 개발 난이도가 높다. 회사는 2027년 하반기 IND 제출을 목표로 전임상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AMB306~308은 이중항체 구조와 듀얼 페이로드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ADC 후보물질이다. 이중항체 ADC는 서로 다른 두 표적을 인식하도록 설계할 수 있으며, 종양 선택성 강화 또는 표적 발현이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약물 전달 효율 개선을 목표로 한다.

듀얼 페이로드까지 결합할 경우 종양 이질성과 약물 내성을 동시에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항체 구조, 링커, 페이로드 조합이 복잡해지는 만큼 생산성과 품질 관리 측면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후보물질 최적화 및 전임상 개발 단계로, 단기 실적 기여보다는 중장기 기술이전 옵션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 1. 에임드바이오 주요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표적 및 기술	파트너	개발 현황 및 향후 일정
AMB302 (BHV-1530)	FGFR3 / Topo 1 억제제	Biohaven	임상 1상, ESMO 2026 발표 완료, 11월 ENA 추가 데이터 예정
ODS025 (BI 4060107)	비공개 표적 / ADC	Boehringer Ingelheim	글로벌 임상 1상 승인, 10월 후속 마일스톤 달성
AMB303	ROR1 / Topo 1 억제제	SK플라즈마	2026년 IND 제출 추진, 2027년 임상 진입 목표
AMB305	신규 표적 / 듀얼 페이로드 ADC	자체개발	2027년 하반기 IND 목표
AMB306~308	이중항체·듀얼 페이로드 ADC	자체개발	후보물질 최적화 및 전임상 개발

자료: 에임드바이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II.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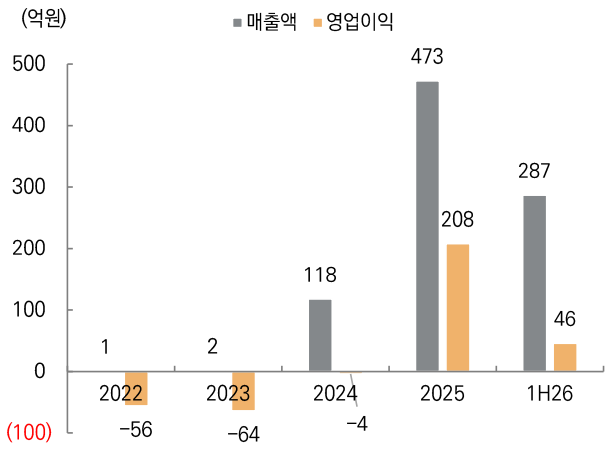
에임드바이오는 2025년 기준 매출액 473억원, 영업이익 208억원을 기록했다. 1H26 매출액은 287억원, 영업이익 46억원이다. 에임드바이오는 기술이전 계약금과 단계별 마일스톤을 매출로 인식하는 사업 구조를 구축했다. 일반적인 초기 신약개발 바이오텍과 달리 임상 개발 단계에서 상당한 규모의 매출을 확보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2026년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마일스톤 수령이 진행되면서 2년 연속 흑자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5년 말 기준,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합계 1,708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연간 현금 지출 400억원을 가정하면 약 4년의 운영 여력이 확보된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런웨이는 후속 기술료 유입과 임상 개발비 증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리스크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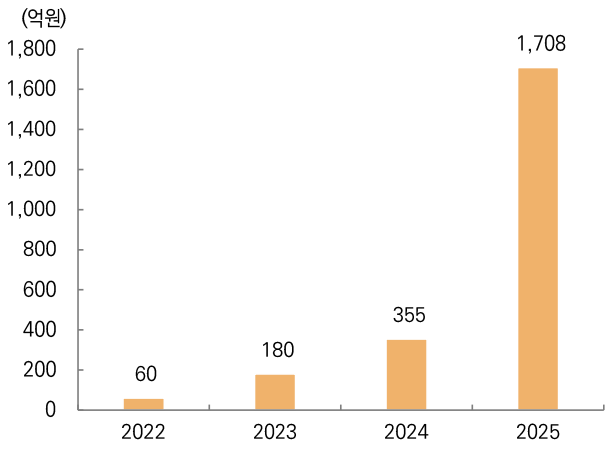
상장 1년이 도래하는 2026년 12월 4일, 기존 주주 보유 주식 1,179만 9,426주의 보호예수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는 상장 당시 발행주식수의 18.39%, 이후 발행주식수 증가를 반영한 약 18.1%에 해당하며, 11월 11일 종가(19,760원) 기준 약 2,332억원 규모다. 지난 2월에도 발행주식수의 16.5%에 해당하는 1,059만 5,547주의 보호예수가 해제됐으며, 당시 인터베스트 등 일부 재무적 투자자가 블록딜과 장내매도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 바 있다. 이번 12월 해제 물량 역시 기존 주주 보유분으로 단기 수급 부담이 예상되나, 보호예수 해제가 실제 매도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주주별 잔여 보유 물량과 투자금 회수 계획, 블록딜 가능성 등에 따라 실질적인 오버행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림 6. 에임드바이오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자료: 에임드바이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에임드바이오의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추이



자료: 에임드바이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에임드바이오 (0009K0)

예상 포괄손익계산서 (요약)

(십억원)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0**	**0**	**12**	**47**
매출원가	**0**	**0**	**0**	**0**
매출총이익	**0**	**0**	**12**	**47**
판매비와관리비	**6**	**7**	**12**	**27**
조정영업이익	**-6**	**-6**	**0**	**21**
영업이익	**-6**	**-6**	**0**	**21**
비영업손익	**0**	**-3**	**-3**	**-25**
금융손익	0	0	1	2
관계기업등 투자손익	0	0	0	0
세전계속사업손익	-6	-9	-3	-4
계속사업법인세비용	0	0	0	-9
계속사업이익	-6	-9	-3	5
중단사업이익	0	0	0	0
당기순이익	**-6**	**-9**	**-3**	**5**
지배주주	-6	-9	-3	5
비지배주주	0	0	0	0
총포괄이익	**-6**	**-9**	**-4**	**2**
지배주주	-6	-9	-4	2
비지배주주	0	0	0	0
EBITDA	-5	-5	1	22
FCF	-4	-3	-5	18
EBITDA 마진율 (%)	-	-	8.3	46.8
영업이익률 (%)	-	-	0.0	44.7
지배주주귀속 순이익률 (%)	-	-	-25.0	10.6

예상 재무상태표 (요약)

(십억원)	2022	2023	2024	2025
유동자산	**7**	**19**	**36**	**179**
현금 및 현금성자산	3	1	4	10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0	1	0	6
재고자산	0	0	0	0
기타유동자산	4	17	32	67
비유동자산	**4**	**4**	**11**	**20**
관계기업투자등	0	0	0	0
유형자산	1	2	1	1
무형자산	0	0	2	2
자산총계	**11**	**22**	**47**	**199**
유동부채	**1**	**15**	**44**	**6**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0	1	1	3
단기금융부채	0	13	42	1
기타유동부채	1	1	1	2
비유동부채	**1**	**0**	**0**	**1**
장기금융부채	1	0	0	1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부채총계	**1**	**16**	**44**	**6**
지배주주지분	**9**	**7**	**3**	**193**
자본금	17	18	18	32
자본잉여금	5	9	9	180
이익잉여금	-14	-23	-26	-21
비지배주주지분	**0**	**0**	**0**	**0**
자본총계	**9**	**7**	**3**	**193**

예상 현금흐름표 (요약)

(십억원)	2022	2023	2024	2025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	**-3**	**-5**	**18**
당기순이익	-6	-9	-3	5
비현금수익비용가감	2	5	5	18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	1	1	1
무형자산상각비	0	0	0	0
기타	1	4	4	17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및부채의변동	0	2	-7	-2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0	0	-7	-5
재고자산 감소(증가)	0	0	0	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0	0	0	3
법인세납부	0	0	0	-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	**-15**	**-16**	**-34**
유형자산처분(취득)	0	-1	0	0
무형자산감소(증가)	0	0	-1	0
장단기금융자산의 감소(증가)	-3	-14	-15	-34
기타투자활동	8	0	0	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0**	**16**	**24**	**118**
장단기금융부채의 증가(감소)	1	12	28	-41
자본의 증가(감소)	22	5	0	185
배당금의 지급	0	0	0	0
기타재무활동	-23	-1	-4	-26
현금의 증가	**1**	**-1**	**3**	**102**
기초현금	2	3	1	4
기말현금	3	1	4	106

예상 주당가치 및 valuation (요약)

	2022	2023	2024	2025
P/E (x)	0.0	0.0	0.0	626.6
P/CF (x)	0.0	0.0	0.0	135.7
P/B (x)	0.0	0.0	0.0	19.2
EV/EBITDA (x)	1.0	0.9	6.0	159.2
EPS (원)	-185	-257	-73	92
CFPS (원)	-111	-122	41	425
BPS (원)	282	168	70	3,002
DPS (원)	0	0	0	0
배당성향 (%)	0.0	0.0	0.0	0.0
배당수익률 (%)	-	-	-	0.0
매출액증가율 (%)	-	54.1	6,768.7	302.0
EBITDA증가율 (%)	-	적지	흑전	1,997.5
조정영업이익증가율 (%)	-	적지	적지	흑전
EPS증가율 (%)	-	적지	적지	흑전
매출채권 회전율 (회)	4.9	7.5	-	28.7
재고자산 회전율 (회)	-	-	-	-
매입채무 회전율 (회)	-	-	-	-
ROA (%)	-113.6	-54.1	-9.5	4.1
ROE (%)	-130.6	-111.8	-65.7	5.1
ROIC (%)	-395.0	-300.8	-20.2	-541.2
부채비율 (%)	15.6	234.3	1,299.8	3.3
유동비율 (%)	713.4	122.8	83.1	3,143.3
순차입금/자기자본 (%)	-52.9	-69.2	188.7	-88.1
조정영업이익/금융비용 (x)	-45.4	-53.9	-4.4	364.2

자료: 에임드바이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에임드바이오의 IPO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에임드바이오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